

서울市內 一部 國民學校 學生 · 學父母의 性教育 要求度 調査

李 玉 哲 *

A Study on the Need in Sex Education of Prim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in Seoul

Ogcheol ,Lee

Abstract

Sex does not mean simply the physical behaviors related to man and woman, rather the sexuality needed socializing process toward total personality. It is believed that religion or social norms on sex, limit talking about sex openly. But children have their own sexual thinking and want to know why and how.

This surve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need in sex education of prim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in Seoul area, comparing students'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to their parents', in October 1989.

Total 400 students and their parents who are attending two primary school in Seoul, were given the questionnaires, and 395 students' and 310 parents', respectively, were finally analyz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The mean of 11 questions in asking sexual knowledge of students was 6.18, and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boys and girls. But the higher grade, the higher score.
2. The positive attitudes on marriage and sex roles were showed, but negative on physical changes with puberty, which was same to the parents' reaction.
3. More than three-fourths of students wanted to take sex education class, and one-third of them believed that it should be conducted by school nurses. This was accorded with their parents.
4. The sexual knowledge degree and attitudes of parents went proportionately to their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

Protestants reacted more negatively to the given sexual terms.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made among the age groups of them.

As stated above, the degree of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are movable accordingly to their children's sexual thinking and need.

Therefore,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sex education in the primary schools should be conducted systematically involving parents, especially mothers.

And it is suggested that school nurses undertake their responsibilities as the sex educators.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I. 緒 論

1. 研究의 背景 및 必要性

급속한 産業化와 西歐文明의 影響으로 物質萬能主義와 享樂主義가 膨大하면서 既存의 價値體系가 危殆하고 있는가 하면, 女性의 社會進出으로 인한 社會·經濟的 獨立은 女性의 性役割期待에 變化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大衆媒體의 發達로 그릇된 性情報의 汎濫과 最近 新聞紙上에 報導되는 國民學校 女兒의 性被害 事件들이 學父母의 마음을 緊張시키고 있으며, 被疑者의 年齡層이 底齡化되고 있다는 것도 主目할 만한 事實이다.^{1) 2)}

이런 性에 對한 問題는 어른에서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다루어져야 할 것인데, 특히 靑少年期의 性問題는 一生을 通하여 매우 重要하다. 國內 靑少年 相談機關에 接受된 相談事例의 52%가 性機能 障礙나 性關係 등 直接的인 性行爲와 같은 것으로 이들의 關心이 고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現在 學校 教科課程에는 체계적으로 이를 다루지 못하고 있는 實程이다.³⁾

이러한 狀況 속에서, 性教育의 必要性은 이미 先行 研究된 많은 報告書에서 지적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思春期 以後의 中·高等學生層의 것을 다루고 있고, 國民學生을 對象으로 한 境遇는 極少數이다. 이는 研究者 自身들이 國民學生을 對象으로 性을 舉論한다는 것이 社會的·道德的·生理的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과 함께 그 必要性을 切感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Goldman⁴⁾은 이제까지의 우리의 性에 對한 생각은 극히 制限된 意味의 性으로, 때가 되면 自然히 알게되는 것으로 여겨 왔으나, 性은 타고난다기 보다는 배워가는 것으로 태어남과 同時에 그 社會化가 進行되어 간다고 보며, 性的 動機誘發은 生理的이라기 보다는 주어진 社會的 役割에서 비롯된다고 보아 兒童의 性的 思考(Sexual thinking)는 결코 無視, 隱蔽되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性이 開放된 社會라고 通念化되어 있는 北美

나 유럽에서조차 兒童을 對象으로 한 性概念 研究가 學校長, 學父母, 경찰로부터 많은 制限을 받았다고 記錄하고 있다. 東·西洋을 막론하고 性問題를 認識하고 있으면서도 그 既存의 禁忌的 思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趙⁵⁾는 兒童期 性教育의 問題點에 對해 教育者, 父母, 代理 教育者가 性 그 自體에 對해 無知하다는 것과, 가정과 학교간의 教育機關으로서의 問題를 들고 있다. 性教育의 責任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 學校와 家庭은 서로에게 그 責任을 돌릴 것이다.⁶⁾ 그러나 兒童의 性 社會化는 태어남과 同時에 始作된다고 할 때, 一次的으로 그 責任은 父母에게 있으며, 學校로부터의 體系的이고, 科學的인 性教育의 뒷받침이 隨伴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一次的으로 責任을 지고 있는 父母는 어느 程度의 性知識, 態도와 實踐을 보이고 있으며, 子女들의 것과는 어떻게 다를까? 現在 우리나라 國民學校 學父母의 年齡層은 體系的인 性教育를 받은 적이 없다. 그렇다고하여 外國의 것을 無分別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危險한 일이다. 이는 50년 前부터 性教育를 義務化한 스웨덴과 最近에 와서야 性教育의 必要性을 強調하게된 프랑스와 같은 유럽國家들, 또한 各州의 情形에 맞게 實施하고 있는 美國의 性教育들은 그들의 宗教, 社會, 文化的 要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⁷⁾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道德·社會·文化的 與件에 맞는 性教育의 必要性을 切感하며 이를 위한 研究가 必要하다고 본다.

本 調査 研究는 우리나라 國民學校 學生의 性教育 要求를 把握하여 現社會에 適合한 性教育課程을 開發하는데 基礎資料를 提示하고자 한다.

2. 研究의 目的

우리나라의 道德的 및 社會的 與件에서 살고 있는 國民學校 學生의 生理的, 精神的 成長發達에 適合한 性教育 課程을 개발하기 위하여 본 研究를 시도하였다. 본 研究의 具體적 目的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國民學生의 性知識, 態度, 實踐과

- 2) 우리나라 國民學校 學父母의 性知識, 態度, 實踐을 把握하고,
- 3) 學生과 學父母 兩集團의 性教育 要求를 比較하여,
- 4) 要求되어지는 性教育의 內容과 方法을 提示하고자 한다.

II. 研究 方法

1. 調査對象

本 研究의 對象은 서울시내 2個 國民學校 4, 5, 6 學年 400 名과 그 學父母를 對象으로 하였다. 실제 應答率은 學生이 395 件으로 95.8%였고 學父母가 310 件으로 77.5%였다.

2. 調査道具 및 調査方法

調査道具는 性知識, 態度, 實踐을 묻는 것으로, 영국의 『兒童의 性的 思考(Children's Sexual Thinking)』, 일본의 『性教育의 實踐의 工夫』 그리고 우리나라 문교부의 『性教育 指道資料』등을 參考하여 性教育에서 다루어야 할 內容을 作成하였다. 몇차례의 세미나를 거쳐 說問紙를 作成하고, 事前調査를 通해 問項 判別度 0.2 以上の 問項만을 골라 實施하였다.

說問紙는 學生의 경우, 性知識面에 11 問項, 態度面에 8 問項, 그리고 實踐面에서 性教育 要求에 관한 17 問項으로 모두 36 問項과 一般의 變數로 年齡, 性別을 적도록 하였다. 學父母의 경우, 知識面에 20 問項, 態度面에 本人의 느낌, 道德的 見解, 社會的 見解등의 29 問項, 그리고 性教育 要求를 묻는 29 問項에, 역시 一般의 變數를 添加하였다.

調査 實施 後, 실제 問項 判別도를 性知識 問項에서 보았는데, <表 2-1>과 같이 學生의 경우 11 問項 모두 適切하였고, 學父母의 경우 20 問項 中 3 問項만이 不適切하였다. (表 2-2 參照)

3. 變數의 選定 및 資料分析

本 調査 研究를 위한 獨立變數로는 學父母의 경우, 年齡, 學歷, 宗教등의 人口學的, 社會的

<表 2-1> 學生에 對한 性知識 問項 判別度

問項 번호	상위 27%의 正 答 者 數	하위 27%의 正 答 者 數	問項判別度
1	72	11	0.57547
2	84	7	0.72642
3	106	72	0.32075
4	96	46	0.47170
5	83	22	0.57547
6	89	23	0.62264
7	103	76	0.25472
8	104	49	0.51887
9	56	12	0.41059
10	32	4	0.26415
11	97	59	0.35849

<表 2-2> 學父母에 對한 性知識 問項 判別度

問項 번호	상위 27%의 正 答 者 數	하위 27%의 正 答 者 數	問項判別度
1	58	10	0.57551
2	77	12	0.78313
3	58	34	0.28916
4	76	35	0.49398
5	64	31	0.39759
6	72	29	0.51807
7	50	28	0.26506
8	77	58	0.22892
9	21	5	0.19277*
10	20	7	0.15663*
11	74	53	0.25301
12	81	18	0.75904
13	66	29	0.44578
14	63	22	0.49398
15	27	3	0.28916
16	23	9	0.16867*
17	77	54	0.27711
18	67	34	0.39759
19	66	17	0.59036
20	59	15	0.53012

있음을暗示하고 있다. 點數의 範圍도 最下 0 점에서 最高 19점으로 그 層이 多樣하였다.

學父母의 年齡別 性知識 程度는 有意한 差가 없으나 學歷別로는 高學力일수록 그 程度가 높

아지며 매우 有意한 差異를 보였다. (表 6-1 參照)

宗教別 性知識 程度는 통계적으로는 有意한 差異가 없었다. (表 6-2 參照)

<表 6-1>

學父母의 年齡別·學歷別 性知識 程度

	20-29	30-39	40-49	50-59	무응답	계*
	M ± S.D.	M ± S.D.	M ± S.D.	M ± S.D.	M ± S.D.	M ± S.D.
국졸	-	7.0 ± 1.77	8.8 ± 2.78	5.0	-	8.1 ± 2.64
중졸	-	8.3 ± 3.48	8.5 ± 3.04	9.3 ± 2.36	-	8.5 ± 3.15
고졸	9.5 ± 2.12	11.0 ± 3.06	10.3 ± 3.15	9.5 ± 4.43	-	10.5 ± 3.13
대졸이상	-	12.6 ± 2.28	11.3 ± 3.17	9.8 ± 2.75	-	11.7 ± 2.91
무응답	-	-	11.0	-	10.1 ± 3.30	-
계	9.5 ± 2.12	10.6 ± 3.40	10.1 ± 3.24	9.2 ± 3.13	10.1 ± 3.3	10.26 ± 3.29

* 學歷別 F = 19.56, P = 0.0001

<表 6-2>

學父母의 年齡別·宗教別 性知識 程度

	20-29	30-39	40-49	50-59	무응답	계
	M ± S.D.	M ± S.D.	M ± S.D.	M ± S.D.	M ± S.D.	M ± S.D.
기독교	11.0	10.4 ± 3.57	10.6 ± 3.35	9.6 ± 2.96	-	10.4 ± 2.63
천주교	8.0	11.5 ± 2.64	10.8 ± 3.66	11.0	-	10.3 ± 3.15
불교	-	11.0 ± 3.61	9.4 ± 2.93	8.8 ± 3.30	-	9.7 ± 3.25
무	-	9.8 ± 3.66	9.8 ± 3.32	8.3 ± 4.61	-	9.3 ± 3.86
그외	-	10.3 ± 2.51	12.0	-	-	11.1 ± 2.56
무응답	-	-	10.0 ± 1.73	-	10.1 ± 3.30	10.6 ± 2.52
계	9.5 ± 2.12	10.6 ± 3.40	10.1 ± 3.24	9.2 ± 3.13	10.1 ± 3.3	10.26 ± 3.29

3. 性에 對한 態度

學生의 性態도와 學父母의 性態도를 問項別로 比較하였다.

全體적으로는 比較的 肯定的인 편이나, 學生의 경우 30%이상의 學生이 「잘 모르겠다」고 答한 問項은 앞으로 研究가 되어져야 할 것

이다.

國民學生의 性態도는 月經, 夢精 등에서 學父母와 함께 매우 否定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結婚과 出產에 대해서는 學生·學父母 모두 肯定的이었음을 볼 때, 두 集團間의 性態도가 결코 無關하다고는 볼 수 없다.

<表 7>

學 生 의 性 別 性 態 度

	학 생								학 부 모			
	남		여		계		학 부 모		학 부 모		학 부 모	
	좋은 느낌 %	나쁜 느낌 %	잘모르 느낌 %	좋은 느낌 %	나쁜 느낌 %	잘모르 느낌 %	좋은 느낌 %	나쁜 느낌 %	잘모르 느낌 %	좋은 느낌 %	나쁜 느낌 %	잘모르 느낌 %
사 춘 기	46.2	24.3	25.9	30.8	33.5	35.7	39.0	28.6	32.4	52.9	33.9	7.2
여 자 > 남 자	18.1	42.9	39.1	48.6	21.1	30.1	32.4	32.7	34.9			
결 혼	67.1	4.3	28.6	46.5	12.4	41.1	57.5	8.1	34.4	90.0	4.2	5.8
내가남자(또는 여자)인 것이	82.4	9.1	8.6	71.4	14.6	14.1	77.2	11.7	11.1			
내가국민 학생인 것이	82.4	13.3	4.3	80.0	15.1	4.9	81.3	14.2	4.6			
아기의 탄생	67.6	7.1	25.1	41.6	16.2	42.2	55.4	11.4	33.2	86.4	6.8	6.8
월 경				28.7	33.0	38.4	28.7	33.0	38.4	31.0	64.8	4.2
몽 정	22.4	22.9	54.8				22.4	22.9	54.8	56.5	27.1	11.0
키 스	38.1	20.5	41.4	20.0	36.2	43.8	29.6	27.9	42.5			
계	53.0	18.0	28.8	45.9	22.8	31.3	47.1	21.1	31.9			

學生的 경우, 女兒 또는 男兒에 대한 選好度를 보았는데, 男兒 82.4%가, 女兒의 경우, 71.4%가 自身の 性을 그대로 擇하고 있어 男兒가 自身の 性을 좀더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볼 수 있다. 이는 Goldman의 研究와도 一致한다. 東 西洋을 막론하고 男兒選好思想은 共通된 점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13歲 前後의 女兒는 月經 등의 生理變化로 인해 더욱 그와 같은 差異가 나타난다고 한다. (表 7 參照)

學父母의 年齡別, 學歷別 그리고 宗教別 性態 度는 表 8과 같다. 이는 各 問項別로 1은 매우 否定的, 2는 否定的, 3은 肯定的, 그리고 4는 매우 肯定的임을 나타내는 尺度로 測定되었다.

全體적으로는 解剖生理에 대한 느낌을 除外하고 肯定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아직 性에 대한 自身の 느낌이나 見解를 밝게 措寫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表 8-1 參照)

學父母의 年齡別 性態 度는 통계적으로 有意한 差異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表 8-2 參照)

<表 8-1> 學父母의 一般의인 性態 度

	학부모수	M	S.D.	범 위
* 1)	304	2.51	0.43	1.0 ~ 3.78
2)	302	3.09	0.39	1.0 ~ 4.00
3)	298	3.00	0.37	1.4 ~ 4.00
4)	301	3.49	0.40	1.4 ~ 4.00
5)	300	3.15	0.49	1.3 ~ 4.00

<表 8-2> 學父母의 年齡別 性態 度

	20-29	30-39	40-49	50-59
1)	1.8	2.5	2.5	2.4
2)	2.7	3.1	3.1	2.9
3)	2.8	3.0	3.0	2.8
4)	4.0	3.5	3.5	2.4
5)	3.3	3.1	3.2	2.1

學父母의 學歷別 性態度는 解剖生理에 대한 本人의 느낌이나 正常的 性行爲에 대한 느낌등이 高學歷일수록 有意한 差異로 肯定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8-3 參照)

다음은 學父母의 宗教別 性態度를 보았는데, 各 宗教別의 差異는 보이지 않으나, 知識面에서 基督教이 높았음에도 態度面에서는 가장 낮아 宗教的인 影響을 짐작하게 한다. (表8-4 參照)

<表8-3> 學父母의 學歷別 性態度

	국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
1)	2.3	2.4	2.5	2.5(P=0.0001)
2)	2.9	3.0	3.1	3.1(P=0.024)
3)	2.9	3.0	3.0	3.0
4)	3.4	3.3	3.5	3.5
5)	3.1	3.1	3.2	3.2

<表8-4> 學父母의 宗教別 性態度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기타	
1)	2.4	2.7	2.5	2.5	2.4
2)	3.1	3.2	3.1	3.1	2.7
3)	3.0	3.1	2.9	3.0	2.8
4)	3.5	3.6	3.5	3.4	3.4
5)	3.2	3.2	3.2	3.1	3.1

* 1) 해부생리에 대한 본인의 느낌, 2) 정상적 성행위에 대한 본인의 느낌, 3) 정상적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견해, 4) 비 정상적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견해, 5) 비 정상적 성행위에 대한 사회적 견해

表9는 性態度에 대한 相關關係를 본 것인데, 解剖生理에 肯定的인 사람은 正常的 性行爲에 대해서도 肯定的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非正常的인 性行爲에 대해서는 本人은 道德的으로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나 現社會에서는 容納되어지고 있다고 보아 그 相關度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表9>

各 見解間의 相關關係

	해부생리에 대한 본인의 느낌	정상적 행위에 대한 본인의 느낌	정상적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견해	非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도덕적 견해	비정상적 성행위에 대한 사회적 견해
1) 해부생리에 대한 본인의 느낌		0.327 (*0.00)	0.227 (*0.00)	-0.022	-0.021
2) 정상적 성행위에 대한 본인의 느낌			0.631 (*0.00)	0.173 (*0.00)	0.096 (*0.01)
3) 도덕적 견해				0.181 (*0.00)	0.042
4) 비정상적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견해					0.626 (*0.00)
5) 사회적 견해					

4. 性教育 要求

가. 性教育者

表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學生은 性教育를 養護教師에게 받기 원하는 경우가 가장 높아 38.2%였고, 이는 學父母의 意見과 一致하였다. 男女別로 볼 때, 女兒는 어머니에게 集中되어

있는 反面, 男兒의 경우, 그 對象이 分散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男兒의 경우, 自身の 性과 같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원하는 것은 Goldman의 研究에서와 같았다.¹⁰⁾

學父母가 要求하는 學生의 年齡別 性教育者로는 年齡層이 增加할수록 學父母 對象이 減少

<表 10> 學生의 性教育者

	남	여	계 *
아버지	10.9 %	2.2 %	6.8 %
어머니	20.0	35.7	27.3
담임교사	7.6	5.9	6.8
양호교사	33.8	43.3	38.2
기타	15.7	4.9	10.7
무응답	12.0	8.1	10.2
계	100.0	100.0	100.0

* 性別 $X^2 = 34.94$, $P = 0.000$

<表 11> 學父母가 要求하는 學生의 性教育者

	20 - 29	30 - 39	40 - 49	50 - 59	무응답	계
학부모	50 %	29.4 %	24.2 %	15.4 %	33.3 %	25.5 %
담임교사	-	20.2	17.0	7.7	66.7	17.7
양호교사	50.0	29.4	41.8	61.5	-	36.4
전문가	-	17.7	15.2	7.7	-	15.2
기타	-	3.4	1.8	7.7	-	5.2
계	100.0 (0.7)	100.0 (38.4)	100.0 (53.2)	100.0 (4.2)	100.0 (3.5)	100.0 (100.0)

<表 12> 學生·學父母가 要求하는 性教育者

	학생	학부모	계
부모	34.1 %	25.5 %	29.8 %
담임교사	6.8	17.7	12.3
양호교사	38.2	36.4	37.3
기타	10.7	15.2	12.9
무응답	10.2	5.2	7.7
계	100.0	100.0	100.0

學生이 원하는 性相談 對象을 性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要求하는 性教育者와는 달리 性相談 要求對象은 집안 어른이 53.2%로 가장 높고, 先生님의 願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現象은 Goldman¹¹⁾의 研究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兒童은 性에 대해 父母에게 가장 많이 質問하며, 先生님, 親舊

하는 것으로 보아, 學敎測에 性教育를 맡기려는 態度를 볼 수 있다. (表 11 參照) 이같은 結果는 學父母의 年齡別 性知識 程度와 性態度面에서 그 關聯性을 짐작할 수 있는데 30代나 40代보다 50代는 性知識 程度(表 6-1 參照)와 態度(表 6-2 參照)가 낮은 平均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性知識·態度가 實踐에 影響함을 暗示하는 것이라고 보아진다. 學生·學父母의 性教育 要求對象을 하나의 表로 만들어 比較해 보았다. 두 集團의 要求度는 비슷한 分布를 보였으나 學生보다 學父母測이 擔任敎師를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12 參照)

에게는 9歲 以後부터 겨려 조롱의 對象이 되는 것을 피하려 하고 대신에 大衆媒體로 옮겨간다고 하였다. 또한 裴¹²⁾는 研究에서 高校生은 親舊를 가장 많이 性苦悶 相談 對象으로 擇하고 있다고 報告했다.

<表 13> 學生이 要求하는 性相談 對象者

	남	여	계
집안 어른	50.5 %	56.2 %	53.2 %
친구	14.3	9.2	11.9
선생님	14.7	22.2	18.2
대중매체	14.3	8.6	11.6
무응답	6.2	3.8	5.1
계	100.0	100.0	100.0

* 性別 $X^2 = 27.80$, $P = 0.000$

나. 性教育 要求 期間

學生이 이미 알고 있거나, 배운 內容과 時期는 表 14-1, 2에서와 같다. 대부분의 學生은 先生님과 父母로부터 배웠고 時期的으로는 結婚, 임신을 除外하고는 高學年에서 알았다고 하고 있다.

이는 學生과 學父母 모두 結婚과 임신에 대해 肯定的 態度를 갖도록 한 것과 關聯되었다

고 본다. 學父母가 肯定的으로 생각하였던 性教育 內容은 國民學校 低學年에서 學父母가 가르친 反面, 二次性徵에 따른 解剖生理는 高學年 때 先生님으로부터 배웠다고 하고 있다. 이는 學父母의 性態度가 肯定的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子女에게 性教育를 시키고 있음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表 14-1> 性教育의 內容別 教育時期

	입 학 전	저(1,2)학년	중(3,4)학년	고(5,6)학년	무 응 답	계
생 식 기 구 조	2.8%	5.3%	18.0%	38.0%	35.9%	100.0%
신 체 의 변 화	1.5	5.2	21.1	57.0	15.2	100.0
월 경	0.8	1.2	10.1	51.2	36.7	100.0
몽 정	2.3	4.3	6.6	38.4	48.4	100.0
성 충 동	0.8	2.2	7.7	28.0	61.3	100.0
자 위	1.0	3.6	7.8	22.5	65.1	100.0
이 성 교 제	2.5	2.8	14.4	28.4	51.9	100.0
결 혼	30.6	19.8	17.2	16.2	16.2	100.0
성 교	2.3	3.5	9.6	24.1	60.5	100.0
임 신	13.4	15.5	27.6	21.5	22.0	100.0
출 산	7.8	9.2	22.5	28.3	32.2	100.0
성 피 해	1.3	1.7	9.2	40.7	47.1	100.0
성 역 할	1.0	3.3	11.9	36.7	47.1	100.0

<表 14-2> 性教育의 內容別 教育對象

	부 모	형 제	친 구	선 생 님	대중매체	무 응 답	계
생 식 기 구 조	15.8%	2.7%	5.3%	28.2%	8.2%	39.8%	100.0%
신 체 의 변 화	20.4	5.4	6.9	35.8	10.0	21.5	100.0
월 경	16.2	2.5	5.4	29.1	8.2	38.6	100.0
몽 정	6.6	2.6	3.4	26.4	6.0	55.0	100.0
성 충 동	3.8	1.4	8.1	12.7	8.9	65.1	100.0
자 위	4.3	1.6	5.8	10.4	7.7	70.2	100.0
이 성 교 제	9.3	2.6	11.2	11.9	9.7	55.3	100.0
결 혼	46.4	5.1	7.5	10.7	10.4	19.9	100.0
성 교	8.5	3.4	5.8	13.7	5.1	63.5	100.0
임 신	33.9	2.6	10.2	14.2	17.4	21.7	100.0
출 산	28.6	1.8	6.6	13.5	15.3	34.2	100.0
성 피 해	11.4	0.8	5.8	10.4	18.9	52.7	100.0
성 역 할	9.9	0.8	5.1	24.2	9.9	50.1	100.0

學生은 自身の 性教育 始作時期를 44.6%가 5, 6 學年이었으면 한다는 意見이었다. 그리고 다음이 中學校 順이었다. 이에 비해 Goldman¹³⁾의 研究는 5~11 歲에 가장 많이 원하고 있다고 報告했다.

男女別로 差異가 있는데, 女兒는 性教育을 低 學年에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女兒의 初經 年齡이 낮아지는 것과 關聯이 있다고 보아진다. (表 15 參照)

〈表 15〉 學生의 性教育 要求時期

	남	여	계
입 학 전 부터	8.1 %	2.2 %	5.3 %
1,2 학년 부터	3.8	2.7	3.3
3,4 학년 부터	6.2	11.4	8.6
5,6 학년 부터	35.2	55.1	44.6
중 학 교 부터	28.6	18.9	24.1
고 등 학 교 부터	11.9	5.4	8.9
무 응 답	6.2	4.3	5.3
계	100.0	100.0	100.0

學父母의 子女에 對한 性教育 要求內容과 時期를 百分率로 보면 表 16 과 같다. 要求學年은 國民學校 1 學年부터 高尙學校 3 學年까지를 一連番號化하여 1에서 12로 그 平均값을 냈으며, 學年의 範圍를 보았다.

대체로 要求學年은 5, 6 學年 以後로 中學校에서 원하고 있으며, 性交, 人工妊娠中絶, 賣春, 離婚등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이는 內容에 대해서는 그 教育 要求度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關聯하여 文敎部의 「性教育 指導資料」는 子女의 正常的이고 調和로운 性的 成熟을 위해 性病, 賣春에 대해서도 教育할 必要가 있다고 적고 있다.¹⁴⁾ 또한 어린 年齡層의 性被害 防止를 위하여 性教育이 早期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中學校 水準에서 가르쳤으면 하는 것은 性的 固定觀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 밖에 學生의 現在 性教育 要求는 76.5%였으며, 學父母의 子女 性教育 指導方法에 대한

어머니교실 參席與否는 81.9%가 “예” 라고 答했고, “아니오”라고 答한 12.3%는 그 不 參理由로 職場 關係上 時間이 容易하지 않음을 들고 있다.

〈表 16〉 子女에 對한 學父母의 性教育 要求內容과 時期

내 용	요구도	요 구 학 년	요구학 년범위
생 식 기 구 조 와 신 체 변 화	88.4 %	5.5	1 - 11
정서, 정신적 변화	83.2	5.8	3 - 11
월 경	84.2	5.6	1 - 12
몽 상	67.4	7.3	1 - 12
성 충 동	67.1	7.9	3 - 12
자 위	56.8	8.3	2 - 12
성 행 위	74.8	6.9	1 - 12
이 성 교 제	75.2	8.2	3 - 12
결 혼	62.6	9.0	1 - 12
성 교	37.7	9.5	5 - 12
입 신	65.5	8.0	1 - 12
출 산	63.2	8.3	1 - 12
가 족 계 획	52.9	9.4	1 - 12
인 공 입 신 중 절	46.5	9.4	4 - 12
순 결	73.5	7.6	3 - 12
매 춘	45.8	8.8	2 - 12
성 병	61.6	8.8	2 - 12
비정상적 성행위	48.4	8.7	2 - 12
성 피 해 방 지	66.5	7.9	1 - 12
성정보의 선별능력	58.4	8.6	3 - 12
성차별과 성역할	59.4	8.6	2 - 12
이 혼	42.6	9.1	1 - 12

IV. 要約 및 結論

國民學校 學生 및 學父母의 性知識, 態度, 性教育 要求를 把握하기 위하여, 國民學校 學生 395名과 그들의 學父母 310名을 對象으로 1989年 10月 10日부터 10月 21日까지 設問調査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性知識 程度는 學父母, 學生모두 낮은편으

로 學生의 경우 11問項에 대한 平均점은 6.18로 男女의 差異는 없었으나 高學年일수록 平均점은 높았다. 學父母의 경우 20問項에 대해 平均점은 10.26으로 高學歷일수록 높은 점수를 보였다.

2. 國民學生의 性態度는 男兒 選好가 두드러지며 解剖生理에 대한 느낌은 그들의 父母들과 같이 不自然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學父母의 性態度는 高學歷일수록 性에 대해 肯定的으로 보고 있으며 宗教的으로는 基督教에서 比較的 높은 性知識 程度에도 불구하고 肯定的이지 못했다.

3. 國民學生의 76.5%가 性教育 받기를 원했으며 學父母와 함께 그 擔當은 養護教師, 父母의 순으로 원했다.

4. 性教育의 時期로는 學生과 學父母 모두 5,6學年이 적당하다고 보았으며 學父母가 要求하는 子女 性教育 內容은 생식기구조와 신체변화, 정서·정신적 변화, 월경등이었고, 특히 賣春, 人工妊娠中絶, 離婚등은 教育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상의 研究結果로 우리나라 學生 및 學父母의 性知識 및 態度變化를 위한 性教育를 國民學校부터 養護教師가 體系的으로 實施할 수 있는 性教育 課程과 制度가 開發되어야 한다는 結論을 誘導할 수 있었다.

參 考 文 獻

1. 李根德: 性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정신건강연구 3집,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1985, pp.47.
2. 韓明希: 국민학교 어린이의 性役割의식과 교육의 문제, 동국대 논문집 22집, 1982, pp.191~219.
3. 백제화: 교과과정 체계적 성교육 필요, 세계일보, 1989.8.22.
4. Ronald and Juliette Goldman: Children's Sexual Thinking, Routledge & Kegan Paul, 1982, PP.2.
5. 조성자: 아동기 성교육의 문제, 효대 논문집 35집, 1987.8, pp.328~326.
6. 한국 청소년들의 생식보건에 관한 연구(I) 한국인보건연구원, 1988.
7. 金順五: 學校 性教育의 現況과 目標, 정신건강연구 3집,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1985, pp.71~77.
8. 崔東壽: 국민학교에서의 성교육 방안, 부산교육, 부산교위, 1980.4, pp.53.
9. 趙成子: Ibid, pp.316~319.
10. 趙貞淑: 고교생의 성교육 필요성에 관한 고찰, 동국대 교육대학원, 1980.
11. Goldman: Ibid, pp.5.
12. 金順五: Ibid, pp.67~69.
13. 趙貞淑: Ibid.
14. 朴炳鍾 외: 성교육을 말한다. 교육전담, 전남교육위, 1982.9, pp.45~47.
15. 金順五: Ibid, pp.69.
16. 松岡弘: 性教育 實踐 工夫, 昭和63.
17. David, Kenneth et al: Health Education in Schools. 2nd Ed., Harper & Row, 1987, pp.186~197.
18. Goldman: Ibid, pp.6~10.
19. 李定均: 精神醫學, 一潮閣, 1982.
20. James, S.R. et al: Child Health Nursing, Addison wesley, 1988. pp.61~66.
21. David et al.: Ibid, pp.206.
22. Daniel, W.W.: Biostatistics; A Foundation for Analysis in the Health Sciences. 3rd Ed., John Wiley & Sons, 1983.
23. Goldman: Ibid, pp.189~191.
24. Goldman: Ibid, pp.12~18.
25. Goldman: Ibid, pp.389~390.
26. 배남숙: 서울시내 실업계 여고생들의 性知識, 態度 및 行爲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보건대학원, 1983. pp.19.
27. Goldman: Ibid, pp.216.
28. 文教部: 性教育 指導資料, 1983.